

# [심장벌레 인물소개]

## <연이원>

\* 20세 남. 운동틱이 주된 틱장애.

틱장애 :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라 알려져있지만, 더 자세히는 '전조감각충동(답답하고 짹짹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이다.

크게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나뉘는데

운동틱 - 단순운동틱 : 눈 깜박거리기, 얼굴 찡그리기, 머리 흔들기, 입 내밀기, 어깨 들썩이기 등  
복합운동틱 : 자신을 때리기, 제자리에서 뛰어오르기, 물건 던지거나 만지기 등

음성틱 - 단순음성틱 : 쿵쿵거리기, 가래 뱉는 소리내기, 기침 소리내기, 빠는 소리내기, 쉬 소리내기, 침 뱉는 소리내기 등

복합음성틱 : 상황과 관계없는 단어를 말하기, 욕설 뱉기, 남의 말을 따라하기 등이 있다.

\* 차림새 : 칙칙한 후드티, 후드집업. 찢어진 청바지나 트레이닝복. 운동화. 몸 곳곳에 상처와 멍이 많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모양새(주로 멍이 많고 큰 상처는 하나 내지 두 개에 생채기 정도의 상처).

\* 자책이 심한 성격으로 큰 덩치에 상처가 많고 후드를 자주 쓰고 다니는 것에 비해 소심하고 착한 인상을 준다.

\* 기타 설명 :

이원은 착하다. 그것도 엄청 과하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뭐만 하면 사과한다. 자신이 미리 미안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이상한 사과를 할 때도 있는데, 자신이 사고를 쳐서 나중에 오해가 더 커지느니 미리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착해야 한다는 강박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그렇게라도 삭감하고 싶다는 태도이다.

어쩌면 이원에게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무엇을 하든 자신이 가장 손해 봐야 마음 편하고, 가장 힘들어야 편하다. 착하기라도 안 했으면 누가 자신을 바라봐줄까, 웃기라도 안 했으면 누가 날 쳐다라도 보겠나, 일만 터지면 자신부터 의심하고 보니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게 제일

빨리 해결되더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어떤 여자애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을 좀 죽여달란다. 이원은 그때만큼 고민도 없이 누군가를 거절한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이 찾아와 죽여달라는 무영을 보고 이원은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던 찰나, 이원은 무영에게 점점 몰입해 간다.

‘뭐가 얼마나 힘들기에 죽고 싶기까지 할까. 나는 잘살아 보겠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하는데 애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아무것도 못 하고 사라지고만 싶을까. 눈을 떼기 어렵다. 혹시라도 내가 떨어졌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누구한테 또 죽여달라 했다가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그러다 진짜로 사라지면 난 어떡하지. 무서울 것 같아.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이 다 있나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탁 남한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깐 겁이 나. 무영이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도 내 옆에서.’

무영이 죽던 날, 이원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무영의 태도에 놀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무영의 눈빛을 보니 알 것 같다. 자신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무영이지만 손을 놓으면 목이라도 그을까 봐 붙잡기는 해야겠고, 톱은 계속 나오고, 매번 하는 톱이지만 제발 이번만은, 딱 10분 만이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럴 생각이 없어. 네가 뭘 상상하고 있던 내가 할 수 있는 건 널 살리는 거야. 내 몸이 잘려 나가는 것 같이 힘들어도 딱 10분만 참아볼 테니까 너도 참아줘. 살고 싶잖아.’

## 무영이 죽은 후 이원의 마음

**분노가 섞인 절망.** 나를 두고 가버린 무영에게, 무영을 사라지고 싶게 한 이 세상에게, 그리고 무영을 살리지 못한 자신에게. 그냥 다. 그 화를 쥐어 짜내서라도 절대 따라가지 않을 거라는, 살 거라는 의지.

—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벌레가 붙어버렸다. 나를 갇아 먹어버릴 끔찍한 벌레가. 아무리 털어내 보려 해도 무영이 사라지지 않는다.

## <백무영>

\* 20세 여.

\* 마른 체형에 앙칼진 매력이 있지만 왜인지 아주 사납다는 인상은 주지 못한다.

\* 과거 친척에게 몇 년을 걸쳐 성폭력을 당함.

\* 기타 설명 :

## 무영의 과거\_

무영의 부모는 일이 바빠 어린 무영을 챙길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바쁠 때마다 딸을 속모 없이 남자만 있는 삼촌의 집에 가서 놀게 했고, 일이 터졌다.

삼촌과 두 명의 사촌 오빠. 무영은 이 중 단 한 명도 이길 수 없었고 반항을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것이 일상이 됐다.

무영은 20살이 될 때까지도 그 순간들이 잊혀 지지 않는다. 특히 괴로운 것은 무영이 17살이던 해, 모든 것을 들켜버렸을 때. 그것도 무영이 유일하게 실 곳이라 여겼던 무영의 집에서.

그날 이후, 모든 건 끝이 났다. 무영의 부모는 무영을 살뜰히 챙겼고, 누군가는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도 무뎠진 오빠들의 실수가 자신을 살렸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영은 그날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었다.

## 무영이 이원을 선택한 이유와 죽는 이유\_

무영은 자기 자신이 싫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받은 것은 완전히 더럽혀진 오물에 가깝다 느낀다. 3년이 지났음에도 무영은 자신에게 물어있는 것들이 더럽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풍기는 약한 모습이 마치 징그러운 벌레 같다. 끝이 났음에도 끝이 나지 않는 이곳을 그냥 뜨고 싶다. 없어지고 싶다.

연이원. 무영에게 이원은

스스로 죽기엔 두려운 나를 죽여줄 사람이었고

혼자 죽기엔 무서운 나와 같이 죽여줄 사람이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나를 지켜줄 사람이다.

이원은 무영에게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민들레꽃 홀씨 하나에도 주저앉아 부는, 지나가는 개미 하나도 밟지 않으려 하는,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는 그런 애. 아주 과한 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상할 정도로 두렵지가 않다. 무영이 아는 남자들은 자신을 휘두르기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이었는데 이 애는 자신을 당당하게 만든다.

처음엔 막 대했다. 자신이 막 대해도 아무 말 못 할 것 같았다. 자신이 남자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 감정이 점점 궁금함으로 바뀌었고, 언제 떠나도 좋다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애 하나만 있으면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살고 싶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 무섭다.

‘혹시라도 이원의 태도가 거짓이면 어찌지. 착각이 아니라면 나와 함께 떠나줘. 데려가고 싶어.’

무영이 이원을 데려가려던 날, 이원을 살리고 싶어졌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낯설어서. 자신이 진짜로 살았으면 하는 눈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게 다 거짓인 이 세상에서, 내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 중 딱 하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착각이 아니라는 것.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건 없었어. 그래, 넌 살아. 살려줄게.’

# [심장벌레 세계관]

## '벌레' 가장 보이기 싫은 약점

이원에게 벌레는\_ 틱장애의 전조감각충동(전조충동).

틱 증상이 '저절로' 몸이 움직여진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이다.

만약 틱이 있는 사람이 운동 틱이나 음성 틱 증상을 보인다면 틱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는 전조감각충동이라는 것이 있다.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에서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게 되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전조감각충동.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 이원의 전조감각충동으로 설명하자면 마치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이 들어 몸을 움직여 털어내려는 것으로, 그 벌레를 털어내지 않으면 벌레가 자신의 몸을 다 갉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휩싸이게 된다고 보면 쉽겠다. 그래서 이원은 틱을 참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에 '참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갉아먹히는 기분을 느껴야 할 만큼 힘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 전조감각충동은 언제나, 항상 든다. 해소하고 바로 1초 뒤 다시 반복된다.

무영에게 벌레는\_ 자신에게 배어 있는 순응의 습관.

무영은 친척들에게 폭력을 당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왔다.

그것이 물리적인 힘을 쓰는 폭력 포함 성적인 폭력이었으며, 어린 무영은 자신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순응'이었다.

생명의 위협이라 느껴지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저항과 동시에 살 궁리를 했을 것이며 그 시도들은 무영을 절망의 길로 내몰았을 것이다.

무영은 과거에 순응해야 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밉다. 조금이라도 무서우면 약한 모습을 보이며 '살려고'하는 감정이 마치 징그러운 벌레와 같다.

심장벌레\_ 사랑. 부끄러운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심이자 징그러운 내가 있을 곳.

결국에 우리가 쉴 안식처는 다른 사람의 심장 속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밖으로 나와 모습을 내보여야 하는 벌레.

이원과 무영은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무영이 죽던 순간) 올라오는 감정이 마치 심장속에서 입으로 벌레가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벌레를 들킬 것을 두려워한 무영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고, 갈 곳을 잃은 이원의 벌레는 다시 심장 속으로 들어가 절망한다.

## ‘이원이 숫자를 세는 이유’

이원이 느끼는 전조감각충동의 강도.

예를 들어 이원의 전조감각충동 값이 1이 가장 약한 충동, 100이 가장 강한 충동이라고 했을 때 이원은 5는 손목을 까딱거리는 것, 10은 목을 꺾는 것, 20은 어딘가를 치는 것으로 해소한다. 70 이상은 꽤나 강도가 세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값으로 거의 들지 않는다.

## ‘무영이 가장 행복할 때 죽어버리는 이유’

무영은 자신의 행복이 0이 되어야 죽을 용기가 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행복에 자신이 안쓰러워져 죽을 수 없다 말한다.

그런데 이원을 만난 뒤 행복이 빠른 속도로 차올랐다.

어느새 100이 다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원과 같이 죽으려 이원의 집에 찾아가지만 행복이 100까지 찬 순간 너무나 두렵다는 감정을 느낀다.

행복의 끝도 100, 무영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약한 모습 또한 100이라면, 무영은 그 100을 자신을 죽이는 데에 썼다.

이원에게 100만큼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 100만큼 올라간 힘으로 자신의 목을 그었다.